

## ■ 괴운(槐雲) 칼럼



## 한비자(韓非子)의 주구사서 (酒狗社鼠)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복야공파 36세)

군주론(君主論)과 제왕학(帝王學)의 성전으로 불리는 중국의 고전(古典), '한비자(韓非子)'의 제34 외저설(外儲說)에 '악은 자라기 전에 잘라라'란 제목에서 술집엔 개가 없어야 한다며, 개(狗)와 쥐(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송(宋)나라에 장(壯)씨라 불리는 사람에 운영하는 술(酒)집이 있었다. 장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술을 만드는 비법이 있어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그 집은 술의 맛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씨에 술도 후하게 술동이를 가득 채워 주었고 손님맞이에도 정성을 다했다. 당시 장씨 집의 술은 품질도 우수하고 서비스도 훌륭하며 홍보 방법도 좋아 성공 비결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술이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본 장씨는 마을에 이름 있는 양천(楊舛)이라는 어른을 찾아가서 물었다. 이야기를 들은 양천은 장씨에게 "혹시 자네 집에 기르는 개(犬)가 사납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가거나, 어린애들이나 심부름꾼이 술을 사러 갔을 때 개가 뛰어나와 물거나 사납게 위협하면 누가 자네 집에 가겠는가? 이와 같은 송나라 장씨 집의 술집 이야기를 통해 통치자의 국정 운영이나 지도자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고 곁에

두는 측근들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하였다.

도(道)를 깨달은 선비나 현명한 충신들이 법과 원칙을 근거로 군주에게 올바른 통치의 지혜를 알려 주어도, 군주의 측근 대신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주인의 은덕을 외면한 채 충신들을 물어뜯는다면, 이것이 군주의 눈이 가려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군주에게 지혜를 가진 현자(賢者)들이 가까이 갈리가 없다.

그리고 중국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이 하루는 승상(丞相) 관중(管仲)을 불러 대화를 나누면서 "나리를 다스리는데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 관중은 "사당(祠堂)의 쥐(鼠)가 가장 큰 골칫거리며 고민입니다." 하였다. 대개 사당은 나무골조로 진흙을 발라 만드는데 나무와 진흙 사이에 쥐들이 서식하게 된다. 이 쥐를 제거하기 위해 연기를 피우면 나무가 불에 탈 수 있고, 물을 뿌리면 흙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당의 쥐를 없애기 위해 고민한다고 하자 환공도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때 관중은 "지금 군주의 측근들이 밖에 나가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파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득과 허물을 덮기 위해 군주를 속입니다. 이들을 쳐벌하자니 군주가 위태하고 그대로 두자니 법이 문란

해집니다. 마치 사당의 쥐와 같은 부패한 간신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현명한 지도자는 무엇을 하기 전에 개와 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술도 마시고, 편안하게 사당에서 제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86)의 사기(史記) 권(卷)63, 노자 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 제3에 기록되어 있다. 본명은 한비(韓非)요, 한(韓)나라 왕실 소생으로 말더듬이었다. 그러나 문재(文才)가 있어 고분(孤憤), 오두(五蠹), 설란(說難) 등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의 학설의 중심은 왕이 신하의 성적을 평가는 형명(刑名)과 법령과 통술법을 포함한 법술(法術)이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유학(儒者)의 도덕을 배척하고 법치(法治)와 통어술(統御術)을 본령으로 하고 있으며, 사상적 주조(主調)는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이다. 진시왕(秦始王)은 한비자의 등용을 갈망했으나, 이사(李斯)의 모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비자 사후에 그의 이론이 천하를 통일하고 통치하는데 밀거름이 되었다.

동서고금을 마흔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차제에 2천년 전 한비자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달의 책  
서애 류성룡 인생십계명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 권대봉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10.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이다.  
일대기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 시 문관으로서 기개와 담대함을 갖춘 권율을 전장의 장수로 육군이었던 이순신을 수군 장수로 선발한 류성룡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뛰어난 지인지감(知人之鑑) 능력 등을 소개한다.  
류성룡이 전쟁의 현장에서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육연정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른 당사자이자 책임자로서 임진왜란과 같은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사명감으로 징비록(懲毖錄)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런 류성룡에 대해 저자는 책머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서애 류성룡 선생 같은 인물이라고 일갈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1차)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10월 정기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뜻한 마음을 나눕시다!!!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1년 10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1년 10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 생활속의 한방건강



## 몸과 마음의 원초적 본질(2)

권희완(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라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마음을 포함하여 작동한다.

사람의 몸과, 생각과 감정의 파장이 내 몸 안에서 발생하는 파동으로만 움직일까? 인체의 생체파장은 크게는 지구의 파동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태양계, 우주와 연계되어 작용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 물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소위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 초대칭끈)'은 미세입자인 양자의 파동이 우주 전체에 걸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끈'으로 서로에게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 7. 파동의학(波動醫學)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다. 현대 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발증(發症)의 과정을 분자 혹은 세포, 조직이나 기관 등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았다.

면역력의 약화나 노화 등에 따른 질병의 근원을 원자나 미세입자인 양자에 놓고, 질병은 이들이 내는 진동수와 파장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변형이나 이상이라고 보고, 그러한 파동을 복원하거나 정상화하는 형태의 자기 치유 능력 향상법이 연구되어 효과를 올리고 있다. 필자는 한방에서 침술 또는 자압도 파동의 조정이나 복원의 치료효과로 본다.

파동의학이란 인체에서 나오는 파동을 분석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이다. 인체가 내는 미묘한 파동에 인체의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실려 있어, 그것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또한 치료의 정보가 실린 파동을 인체에 전달해 병을 치료하는 의료방법이다. 소변, 혈액, 모발 등에도 생체의 각종 파동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생활의 결과물이다.

## 8. 몸과 마음의 원초적 본질

몸과 마음의 원초적 본질은 이를 구성하는 양자의 파동이 내는 에너지와 리듬에 있다. 그러므로 매력있고 건강한 생활은 자신의 생체자기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여, 이 파동을 생동의 리듬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파동이 원초적 파동과 부합되거나 활성화되도록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크다. 규칙적인 파동은 좋은 리듬을 갖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도 뇌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파동이며 에너지이다. 이들도 각각 고유의 진동수, 파동이 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나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이나 감정 등이 각기 다른 진동수와 파장을 갖게 된다. 생체자기장은 몸뿐만 아니

■ 이달의 시  
속초바람

/ 권정남

설악산 속 불 번쩍이고  
숨어 있는 설인설이  
미시령 밤하늘 가르며  
달보고 울음 치던 짐승들이  
오늘밤  
겨울 설악 계곡마다 뛰쳐 나와  
신편별 가르며  
발톱 빠른 걸음으로 회오리치듯  
내 뜨락에 모여  
영문도 모를 일로  
저희끼리 으르렁 거리고  
허공을 물어뜯고 있다.

권정남 작가는 1987년 '시와 의식'에서 시 '목련'으로, 2015년 '현대수필'에서 수필 '연리근'으로 등단했다. 제1회 강원문학상작품상, 관동문학상, 강원여성문학상, 강원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속초바람' '서암속의 사진 한장' 등 네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 &lt;2021年 9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gt;

납부기간: 8. 31. ~ 9. 27.

총 납부자 18명

(이름순)	단위: 원		
권기도(구미)	30,000	권영팔(서울노원)	50,000
권병일(제천)	100,000	권영호(용인)	30,000
권부종(고흥)	30,000	권오실(서울강동)	30,000
권순원(영덕)	30,000	권용기(대전 법동)	30,000
권영건(예천)	300,000	권재호(산청)	30,000
권영국(대구)	30,000	권정열(진주)	30,000
		권형원(양주 덕계동)	30,000

총 900,000원

## 족보편찬회라고 연락하는 사기행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어떤 사람이 대종회라고 사칭하기도 하고, 족친이라고도 사칭하며 족보를 만든다고 족친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며, 족보 발행을 빙자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고 하니 이를 악용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족친여러분!

대종회에서는 현재 족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할 계획도 없으며, 발행하여 판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족보 편찬과 관련한 사기행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